

북쪽은 작은 시)에 물 과량새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요. 직원용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밥을받기

< 권 닥터.....내 친한 친구가 말기 암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급하게 권 닥터를 만나러 노동자 병원에 갔더니, 한국에 돌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연락해서 간신히 메일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메일 받는 대로 전화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 당시에는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고자 한국 평택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포기하고 돌아와 있지만.....그때에는 처음 해보는 귀농 교육 일이라서 농장 일들을 마치고 들어오면 온몸이 지쳐서 메일 확인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기 때문에 들어온 메일을 몇 일 늦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

메일을 확인한 그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중국 경찰 공무원인 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 형님.....잘 지내시었죠. 메일을 이제 확인 해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미안하네. 휴가 받고 한국으로 나갔는데,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휴가요.....땀 엄청 흘리면서 중 노동하고 있습니다” “.....” “.....”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고요. 말았습니다(사실 중국 생활 했다는 이야기와 어떤 복잡한 암이기에, 한국에 저를 찾습니까?) 귀농실습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저는 자연스럽게 화 사람들이 듣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고 한 손에는 밥을 “암환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의무, 책임성이 너무 강해서 오는 스트레스 입니다” “아~~~~~” “그리고 술과 담배 하나요?” “술 고래 그리고 담배는 염소처럼 입에 물고 다니네” “그러면 당장 술과 담배를 끊고 면 종류 식사를 모두 금지 할 수 있나요?” “술 담배는 암 진단 받고 바로 끊었고.....면...우리 서북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면인데.....” “면을 끊지 못하시면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 형님이 후 국장과 의논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음식조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결정 후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농장에 전화기는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결정 후 전화 해주세요”화를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농장